

이슈페이퍼 2017-18

영유아 부모 양육역량 강화방안

권미경 | 부연구위원

1. 영유아 부모 양육역량 강화 필요성
2. 자녀 양육역량과 영향요인
3. 자녀 양육부담과 영향요인
4. 영유아 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영유아 부모 양육역량 강화방안*

권미경 | 부연구위원

요약

- 자녀를 기르는 일이 즐거움이기보다 어렵고, 부담스런 일로 보편화되는 상황에 양육지원의 방향이 비용 지원보다는 양육 즐거움 회복과 양육의 주체인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에 모아져야함.
- 영유아 부모는 양육역량에 대한 중요성은 높게 평가하나 실제 자신의 역량은 낮게 평가하여 양육에의 자신감이 부족하며 이는 현재 자녀양육 상황에서 부모의 양육역량감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영유아 부모대상 1,302명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육역량과 양육부담에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가정 내 양육역량강화 방안을 구체화함.
- 가정 내 양육역량 강화 방안으로 현재 제공하는 지원정책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부모교육과 정보제공 기회 확대를 제언하며, 특히, 양육 정보, 자신감 부족 등에서 상대적 취약 집단으로 나타난 영아 부모 대상 지원을 특화해야함을 제언함.

1 영유아 부모 양육역량 강화 필요성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기르는 일이 즐거움이기보다 어렵고, 부담스런 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양육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나 실제 자신이 역량은 낮게 평가하는 현상을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부모의 양육지원 방향이 비용 지원보다는 양육 즐거움 회복과 양육의 주체인 부모의 역량강화에 모아져야함.

* 본고는 2016년도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과제인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권미경, 박원순, 엄지원)'을 토대로 구성됨.

- 영유아 부모의 역량강화는 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돌봄역량, 지원역량, 정보 습득 및 이용에 대한 역량 등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의 활용까지도 포괄함.
- 영유아 부모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양육 자신감 회복이 가능하므로 현재 영유아 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역량과 양육부담을 진단하고 그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지원 강화와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자녀 양육역량과 영향요인

-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돌봄, 지원, 양육정보, 정책인지 및 활용 등, 그 중요도와 현재 영유아 어머니가 인지하는 스스로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가. 돌봄 역량

- 돌봄 역량은 자녀발달을 이해하고,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어떻게 돌보아야하는 지 알고, 자녀를 돌보는데 충분한 체력을 지닌 지를 의미함.

〈표 1〉 돌봄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단위: %(명), 점(점)

구분	중요도					현재 나의 역량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	평균 (표준 편차)	매우 부족함	다소 부족함	약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	평균 (표준 편차)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	0.1	0.4	24.0	75.5	100.0 (1,302)	3.7 (0.45)	2.9	40.7	48.6	7.7	100.0 (1,302)	2.6 (0.67)
자녀요구에 민감한 반응	0.1	0.5	31.1	68.3	100.0 (1,302)	3.7 (0.48)	4.1	44.4	44.2	7.3	100.0 (1,302)	2.5 (0.69)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지식	0.0	0.5	38.0	61.5	100.0 (1,302)	3.6 (0.50)	5.1	45.5	44.0	5.4	100.0 (1,302)	2.5 (0.68)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체력	0.2	0.2	28.1	71.6	100.0 (1,302)	3.7 (0.47)	19.1	52.7	24.4	3.8	100.0 (1,302)	2.1 (0.76)

주: 4점 척도임.

- 돌봄 역량의 중요 정도에는 '매우 중요함(4점)'에 가깝게 평가하였으나, 현재 어머니 자신의 역량은 '약간 충분함(3점)'에 못 미치는 수준임.
- 영유아기 어머니들은 특히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체력'에 가장 낮은 역량감(2.1점)을 보여 양육이 육체적으로 힘들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임.

나. 지원 역량

- 지원 역량으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는 등 일상적 지원,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요구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자녀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사회관계 형성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함.
- 어머니들은 지원관련 역량 중 정서적 지원에 대한 중요도(3.8점)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사회관계 형성을 통한 지원(3.5점)에는 낮게 평가함.
- 현재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는 일상적 지원에 대해 가장 높은 역량감(3.0점)을 보임.
- 친구나 이웃 등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사회관계 형성을 통한 지원에는 비교적 낮은 역량감(2.3점)을 나타냄.

〈표 2〉 지원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단위: %(명), 점(점)

구분	중요도					현재나의역량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	평균 (표준 편차)	매우 부족함	다소 부족함	약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	평균 (표준 편차)
일상에 대한 지원	0.2	1.1	40.6	58.1	100.0 (1,302)	3.6 (0.53)	1.8	20.9	53.7	23.6	100.0 (1,302)	3.0 (0.72)
정서적, 심리적 지원	0.2	0.7	18.3	80.9	100.0 (1,302)	3.8 (0.43)	3.8	41.6	45.2	9.4	100.0 (1,302)	2.6 (0.71)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0.2	0.9	33.7	65.3	100.0 (1,302)	3.6 (0.51)	7.3	40.5	42.2	10.0	100.0 (1,302)	2.5 (0.77)
사회관계(친구, 이웃) 형성	0.2	2.2	44.3	53.4	100.0 (1,302)	3.5 (0.55)	11.4	49.9	32.8	5.8	100.0 (1,302)	2.3 (0.75)

주: 4점 척도임.

다. 양육 정보 역량

- 정보화 사회에서 양육을 위한 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은 중요한 역량 요소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는지(정보 접근성),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정보 활용성),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갖고 있는 지(정보 충분성)로 구분함.
- 영유아 어머니들은 양육 정보 관련 내용에서도 중요도에 비해 역량감을 낮게 평가하면서, 정보의 접근성(2.7점)에 대해 활용성(2.5점)이나 충분성(2.5점)에 비해 다소 높은 역량감을 보임.

〈표 3〉 양육 정보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단위: %(명), 점(점)

구분	중요도					현재 나의 역량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	매우 부족함	다소 부족함	약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		
양육관련 정보 접근성	0.1	2.4	54.7	42.8	100.0 (1,302)	3.4 (0.54)	2.7	35.2	51.2	10.9	100.0 (1,302)	2.7 (0.69)
양육관련 정보 활용성	0.1	2.3	49.0	48.6	100.0 (1,302)	3.5 (0.55)	4.3	45.5	42.6	7.5	100.0 (1,302)	2.5 (0.70)
양육관련 정보 충분성	0.2	3.5	52.4	43.9	100.0 (1,302)	3.4 (0.57)	4.2	45.6	43.8	6.5	100.0 (1,302)	2.5 (0.68)

주: 4점 척도임.

라. 정책 인지 및 활용 역량

- 현재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도 양육 역량으로 고려됨. 정책인지 인지(3.5점)나 정책 활용(3.6점)의 중요도보다 역량감(인지, 2.4점; 활용, 2.3점)은 낮은 경향을 보임.

〈표 4〉 정책 인지 및 활용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단위: %(명), 점(점)

구분	중요도					현재 나의역량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	매우 부족함	다소 부족함	약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		
양육지원 정책 인지	0.0	1.0	45.2	53.8	100.0 (1,302)	3.5 (0.52)	8.6	50.6	34.4	6.4	100.0 (1,302)	2.4 (0.73)
양육지원 정책 활용	0.1	1.6	41.3	57.0	100.0 (1,302)	3.6 (0.53)	12.7	53.8	27.8	5.8	100.0 (1,302)	2.3 (0.75)

주: 4점 척도임.

마. 양육 역량에의 영향요인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회귀분석 방법으로 고찰함.

 - 돌봄, 지원, 양육정보, 정책인지 및 활용역량 각각의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자녀수, 자녀연령, 기관이용 여부, 어머니 학력, 가구소득¹⁾, 맞벌이 여부, 양육부담을 기본 독립변수로 설정함.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자신의 돌봄 역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beta=.192$)뿐만 아니라 자녀수($\beta=.087$)가 많을수록 돌봄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부담($\beta=-.287$)이 크다고 평가한 경우, 양육역량에 대해 낮게 평가함.
- 어머니의 지원양육역량감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 연령, 기관이용여부, 어머니 학력, 가계소득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자녀 연령($\beta=-.048$)이 높을수록, 양육부담($\beta=-.300$)이 클수록 낮게 평가하였고, 기관을 이용한 경우($\beta=.108$), 어머니 학력이 고졸에 비해 4년제 대학, 대학원졸 이상($\beta=.178$)인 경우와 가구 소득($\beta=.094$)이 높을수록 역량감을 높게 평가함.
- 양육정보역량감에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녀 연령($\beta=-.043$)이 높을수록, 양육 부담($\beta=-.177$)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어머니 자신의 양육정보역량을 낮게 평가하며, 어머니가 고졸인 경우에 비해 대학원졸($\beta=.178$) 이상에서 양육정보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정책인지 및 활용역량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는 자녀수($\beta=.089$)가 많을수록,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관을 이용한 경우($\beta=.167$) 정책 인지 및 활용에 대한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양육 부담($\beta=-.215$)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정책 인지 및 활용 역량을 낮게 평가함.

1) 가구소득의 경우 편차가 심하여 회귀분석을 위해 자연로그값을 취하여 분석하였음.

〈표 5〉 양육역량에의 영향 요인

	돌봄 역량	지원 역량	양육정보역량	정책인지 및 활용 역량
	β	β	β	β
(상수)	3.246***	2.970***	3.219***	3.066***
자녀수	0.087***	0.028	0.053	0.089**
자녀 연령	-0.006	-0.048***	-0.043**	-0.025
기관 이용	-0.006	0.108**	0.044	0.167**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졸	0.040	0.051	0.015	-0.033
4년제 대졸	0.037	0.109*	0.054	0.007
대학원졸 이상	0.192**	0.178**	0.178*	0.037
가구 소득 ²	-0.016	0.094***	-0.017	-0.046
맞벌이	0.036	-0.034	0.005	0.040
양육부담	-0.287***	-0.300***	-0.177***	-0.215***
R^2	0.110	0.127	0.040	0.043
F	17.757***	20.871***	5.945***	6.526***
N	1,302	1,302	1,302	1,302

* $p < .05$, ** $p < .01$, *** $p < .001$

바. 시사점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역량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자녀의 수가 영향을 미침은 여러 번의 양육경험이 어머니의 역량감을 증가시킨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역으로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역량강화 기회가 보다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역량감이 떨어진다는 결과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 발달을 지원하기위한 부모 역량 강화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함.

3 자녀 양육부담과 영향요인

- 현재 자녀양육 어려움에 대해 1순위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16.4%)임.
 - 긴급 보육과 잠깐의 휴식 제공 요구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기관에의 요구가 높음을 보여줌.

〈표 7〉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

단위: %(명), (명)

구분	전체	
	1순위	1+2+3순위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	43.7	67.2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부족하다	16.4	50.0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	11.0	54.8
교육·보육 비용이 부담된다	10.3	37.3
기저귀, 분유 등 양육비용이 부담된다	5.5	20.1
학원, 학습지 등 사교육비가 부담된다	4.4	25.1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다	4.1	16.0
수면시간 부족으로 체력적으로 힘들다	3.7	25.4
기타	0.8	3.9
계	100.0(1,302)	(1,302)

가. 양육 부담

-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담을 양육 책임자체에 대한 부분, 신체적 측면, 심리적 정서적 위축,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부담 정도를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부터 ‘매우 부담됨(4점)’의 기준으로 답함(표 8 참조).
 - 전반적으로 ‘다소 부담된다(3점)’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양육 시 경험하는 육체적·신체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3.2점)이 비교적 높음(표 9 참조).
- 이러한 양육 부담 중 집단의 차이를 보이는 경제적 부담정도에 지역규모, 자녀연령, 자녀 수,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등에서 집단차이를 확인함.

-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자녀의 연령이 12개월 미만 영영아와 만 4세, 만 5~6세 집단에서,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부담이 높게 나타났고, 맞벌이가 아닌 경우와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경제적 부담이 높았음.

〈표 8〉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

단위: %(명), 점(점)

구분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음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	평균 (표준편차)
부모로서의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	3.5	14.8	58.0	23.7	100.0(1,302)	3.0(0.73)
양육 시 신체적(체력) 부담	0.9	12.5	55.5	31.1	100.0(1,302)	3.2(0.67)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	2.7	21.6	55.3	20.5	100.0(1,302)	2.9(0.72)
경제적 부담	1.0	13.0	52.3	33.7	100.0(1,302)	3.2(0.69)

주: 4점 척도임.

〈표 9〉 자녀를 양육할 때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

단위: %(명), 점(점)

구분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음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	평균 (표준편차)	F/t	
전체	1.0	13.0	52.3	33.7	100.0(1,302)	3.2(0.69)		
지역 규모	대도시	0.6	13.6	50.4	35.5	100.0(529)	3.2(0.69)	4.078*
	중소도시	1.6	13.4	55.2	29.8	100.0(553)	3.1(0.69)	
	농어촌지역	0.5	10.7	49.7	39.2	100.0(220)	3.3(0.67)	
자녀 나이 ²	만0세	2.0	12.7	52.8	32.5	100.0(197)	3.2(0.71)	5.266***
	만1세	1.5	17.3	48.9	32.3	100.0(211)	3.1(0.74)	
	만2세	1.9	13.9	57.2	26.9	100.0(209)	3.1(0.69)	
	만3세	0.0	16.0	53.3	30.7	100.0(226)	3.1(0.67)	
	만4세	0.4	11.4	55.5	32.6	100.0(227)	3.2(0.65)	
	만5~6세	0.4	7.2	46.4	46.0	100.0(232)	3.4(0.64)	
자녀 수	1명	1.0	16.2	52.0	30.8	100.0(696)	3.1(0.70)	9.861***
	2명	1.3	10.3	53.9	34.4	100.0(483)	3.2(0.67)	
	3명 이상	0.0	5.7	47.5	46.7	100.0(123)	3.4(0.6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	15.1	52.6	31.1	100.0(677)	3.1(0.70)	-2.741**
	맞벌이아님	0.8	10.8	52.0	36.4	100.0(625)	3.2(0.67)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0.0	3.6	40.8	55.6	100.0(195)	3.5(0.57)	36.067***
	250~350만원	0.0	7.3	56.6	36.1	100.0(374)	3.3(0.59)	
	350~500만원	0.8	14.5	54.2	30.4	100.0(367)	3.1(0.68)	
	500만원 이상	2.8	22.4	52.1	22.7	100.0(366)	2.9(0.75)	

주: 양육역량과 양육부담 변인에는 경제적 측면에 대한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 본 분석 시 제외함.

* $p < .05$, ** $p < .01$, *** $p < .001$

나. 양육 부담에의 영향 요인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회귀분석 방법으로 살펴봄.
 - 양육책임 자체, 신체적 부담, 심리적 부담, 경제적 부담 등 양육부담 문항의 평균값을 종속 변수로 하고 자녀수, 자녀의 출생순위, 자녀연령, 어머니 학력, 가구소득²⁾, 맞벌이 여부, 양육역량을 기본 독립변수로 함.

〈표 10〉 양육부담에의 영향 요인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	신체적(체력) 부담	심리·정서적 위축감/부담	경제적 부담
	β	β	β	β
(상수)	4.087*	3.922***	4.424***	5.766***
자녀수	0.066	0.005	0.067	0.053
자녀 연령	-0.065	-0.030*	-0.069	0.055
기관 이용	-0.019	-0.030	0.008	0.014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졸	0.074	0.061	0.039	-0.079
4년제 대졸	0.131*	0.129*	0.048	-0.199**
대학원졸 이상	0.127	0.133	-0.075	-0.311***
가구 소득 ²⁾	-0.040	-0.025	-0.108*	-0.287***
맞벌이	0.002	0.033	0.045	0.044
양육역량	-0.351***	-0.232***	-0.375***	-0.383***
R^2	0.054	0.037	0.071	0.164
F	8.126***	5.483***	10.988***	28.067***
N	1,302	1,302	1,302	1,302

* $p < .05$, ** $p < .01$, *** $p < .001$

- 부모로서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4년제 대학 졸업인 경우($\beta=.131$) 부담이 더 높았고, 양육역량($\beta=-.351$)을 높이 평가할수록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2) 가구소득의 경우 편차가 심하여 회귀분석을 위해 자연로그값을 취하여 분석하였음.

- 양육 시 신체적(체력) 부담에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자녀 연령($\beta=-.030$)이 높고 양육 역량 감($\beta=-.232$)을 높게 평가할수록 신체적 부담을 낮게 평가하며, 학력이 고졸에 비해 4년제 대학 졸업($\beta=.129$)인 경우 양육 시 신체적(체력)부담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 정도에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beta=-.108$)이 높고 양육 역량감($\beta=-.375$)을 높게 평가할수록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 학력이 고졸에 비해 4년제 대학 졸업($\beta=-.199$), 대학원졸 이상($\beta=-.311$), 가구소득($\beta=-.287$)이 높을수록, 양육 역량($\beta=-.383$)을 높게 평가할수록 경제적 부담이 낮다고 평가함. 자녀연령이나 취업유무는 집단차이는 보이거나 영향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음.

다. 시사점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구소득은 심리적 위축, 경제적 부담 등에서의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음. 이는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보편 지원의 틀 안에서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차등적 지원방안 모색을 필요로 함.
- 신체적 부담에 자녀연령이 영향 요인이라는 결과는 영아 자녀일수록 수면습관이 불규칙하고, 자조기술 발달이 부족하여 양육자의 신체적 부담이 클 것임을 예측하게 함. 이는 자녀 양육에 심포를 제공하지는 시간제보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 영아기 부모임을 보여줌.

4

영유아 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가. 제언을 위한 논의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영향요인으로 자녀 수와 자녀 연령이 설명력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과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로 역량강화 기회가 필요함.

- 자녀양육과정에 요구되는 돌봄 역량, 지원 역량, 양육 정보 역량, 정책인지 및 활용 역량 등에 대해 어머니들은 그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현재 지원중인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양육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책의 활용도와 접근성의 확대가 필요함.
- 국가 지원에 수반되는 재원의 확보가 쉽지 않음과 양육지원에의 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차등적 지원 방안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부담에는 가구소득이 심리적 위축,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음.
- 영아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육아에 잠시 휴식을 줄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활용이나 함께 양육 경험을 나눌 수 있고, 양육 스트레스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접근 기회 확대를 도모해야함.
- 양육부담에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체력적인 역량감이 떨어지고 신체적 부담의 정도가 높음은 확인함.
-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관련 정보의 제공과 소통의 통로 확보와 활성화가 필요함.
- 정책에 대한 노출이 적은 영유아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최소한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출생신고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푸시 서비스 방식의 정책 안내를 제언함.
- 영영아 가구와 첫째 자녀 양육 가구, 저소득 가구,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가구들이 정책에 대한 노출이 적고, 정책정보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각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가정 내 양육 역량강화는 자녀의 출생, 성장과 더불어 부모도 성장하는 가족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그 기회를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 제언

- 가정 양육역량강화 방안으로 현재 제공하는 지원정책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부모교육 기회확대와 정보제공 강화를 제언하면서, 본 연구 결과 정보, 자신감 부족 등으로 상대적 취약 집단으로 나타난 영아 부모 대상 역량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화함.

1) 정책에의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증진 방안

- 주민센터에 ‘미래인적 자원 육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공간 및 ‘양육지원요원’ 배치하며, 또한 전국에 촘촘하게 확산되어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정 양육지원 거점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주민센터 내 양육지원 거점 설치 방안
 - 접근성이 뛰어난 주민센터에 양육지원 거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핵가족화와 이웃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이라는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양육을 전담하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상호교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함.
- ‘양육지원요원’ 주민센터 배치 방안
 - 영유아 자녀를 둔 정책의 수요자에게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양육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이용 신청까지 제공하기 위함.
 - 주민센터에 상근하는 ‘양육지원요원’은 임신, 출산, 양육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 시 그 신청까지 지원하는 것임. 중앙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사업을 안내 홍보하며, 영유아 놀이 공간, 병원, 예방접종 장소 등에서 다양한 양육지원 정보도 제공하고, 간단한 양육 상담도 실시함.
 - 주민센터 내 양육지원공간을 설치하고 ‘양육지원요원’이 이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호주의 ‘센터링크’ 개념을 접목하여 출생 신고 시부터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정 양육지원의 거점으로 활용
 - 독일의 패밀리센터, 우리나라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활용하는 방안임.

- 전국에 어린이집이 약 4만 1천여 개, 유치원은 8천여 개가 있는 상황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강점을 지니며, 또한, 양육 전문성을 지닌 원장과 교사가 양육 지원에의 안내 및 상담, 교육 기능 담당 가능함.
- 농어촌 지역에는 찾아가는 지원 사업 활성화
 - 외출이 어려운 영아, 환아, 야간 및 긴급 일시보육이 필요한 가정, 지역사회 거점 시설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영유아와 가정으로는 찾아가는 양육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가정을 찾아가서 돌봄 방법을 안내하고 양육 상담과 기본적인 건강 및 영양교육까지 제공하고 있는 세종자치시의 방문간호사 제도나 독일의 헤베마가 대표적인 사례임.
 - 특히 이용이 불규칙하고 예측이 어렵거나, 전반적인 이용률이 낮은 경우 필요 충족을 위해 신규 설치나 확대는 소요 비용이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2) 부모교육 기회 확대

- 국가수준의 부모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기초 마련
 - 부모교육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지자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정책영역으로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함.
 -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여성가족부(2016.3.29.)의 ‘부모교육 활성화방안’이 배포되었으나 법제화가 필수적임.
- 부모교육은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속적 교육 모형 개발을 제언함.
 -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의 역할도 함께 성장함을 고려하여 자녀의 연령대별 부모교육과정을 구성해야함.
- 부모교육 참여 증진을 위한 묘안 찾기
 - 부모교육은 늘 관심 있는 부모들은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역량강화가 더 요구되는 부모들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
 - 접근성 증진을 위해 부모교육 제공 시 직장, 군부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교육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함.
 - 영유아가 부모대상 교육 시에는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어린이 집과 유아교육 기관인 유치원을 영유아 대상 부모교육의 거점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임.

3) 양육 정보 제공 강화

■ 국가 수준의 양육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구성 발간

- 영유아 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쓴 발달에 맞는 양육지침서, 연령별 놀이활동지침서, 정책안내서를 구성·제공하자는 것임.
- 최근 영유아와 그 부모 대상 정책의 변화가 급격하고, 또한 지자체의 특화 사업들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정책수요자에게 정책 변화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함은 정책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한 전제조건임.
- 중앙 정부의 공통부분은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자체로 보급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특화사업이나 양육관련 정보를 각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추가 보완하는 방법임.

■ 국가 수준에서 신뢰로운 온라인 육아정보 플랫폼을 구축함.

- 영유아 부모가 지역막 카페를 선호하는 이유는 생생한 정보의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육아정보에 있어 마치 집단지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보가 왜곡될 수 있고, 부정적인 심리를 자극하는 것도 많아 웹상의 올바른 정보 안내가 필요함.

4) 영아기정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 거점형 영아 양육지원 센터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

- 자신감이 부족한 영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발달전문가가 자연스런 놀이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부모의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역사회 내 영유아 부모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하며,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공동주택의 특정 공간(아파트 공용 공간) 등을 이용함.
-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정도로 하고 예약을 받아 운용하며 필요하다면 부모 자부담으로 하거나 지자체 바우처 형태로 제공을 고려할 수 있음.
- 대안적 접근으로 초기 영아 양육지원 센터의 설치에 지자체에서 담당하지만 그 운용을 지역사회 내 비영리 단체나 종교단체, 아파트 주민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가능함.

□ 육아서포터즈 사업: 가천대 세살마을 사업 확산 방안

- 영영아 및 영아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육아서포터즈가 방문하여 양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양육역량 및 자신감 회복뿐 아니라, 지속 방문으로 양육자와 육아서포터즈와의 라포 형성으로 양육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지원까지도 가능함.
- 영유아와 그 부모, 그 속한 지역사회, 학계 전문가, 후원자로의 기업의 참여를 통해 더불어 함께 키워가는 사회를 구축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이와 더불어 육아경험을 지닌 유아교육과 아동학 전공자로 선발하는 육아서포터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임.
- 출산 전 예비부모교육, 3개월 경,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총 6회의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 교육 내용은 양육 정보제공, 놀이방법, 육아기술에 대한 교육제공 및 실제 양육 상황에서의 코칭, 양육자 건강상태 스트레스 지수 확인 등 각 시기 영아의 발달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안내하고 발달에 적합한 놀이 사례와 양육 상담을 제공함.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세살마을 사업을 기획하여, 후원체(기업), 지원체(세살마을 연구진), 운영체(지자체)로의 역할을 분담함.

참 고 문 헌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